

내 남자가 바람났다의 저자

송강희의 누·드·토·크

죽을 만큼 갖고 싶어서 흠치면 절도가 아닌가요?

80년대 대학을 다니던 시절, 제 친구가 감옥에 간적이 있습니다. 친구가 갖던 감방에 여자 정치범이 없어서 일반범들과 같은 방을 썼습니다. 그 방이 간통방이었는데 정말 예쁜 여자가 있었다는군요.

어떤 얼굴도 못생겨보이지 않는 재주를 가진 회색 수의를 껴입어버린 미모였습니다. 당시 30대 초반으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던 그녀는, 남편이 지방근무를 하는동안 상대 남자를 데려다 집에서 살았답니다. 주위에서도 다 남편인줄 알았고 아이들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간통으로 넣은 남편을 원망하며 이렇게 말했다는군요.

“자기가 뭘대 나를 간통으로 넣느냐. 주변 사람들 다 그 사람이 내 남편인줄 알고 있었고 애들도 아빠라고 불렀는데 자기가 무슨 권리로!”

간통으로 들어온 그 방의 사람들마저도 여인이 범행했다고 하더군요. 제 친구는 그녀가 농담하는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진심이더라고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군요. 주변에서 다 아빠인 줄 알았다. 슈퍼 아줌마도, 옆집 아줌마도, 그리고 애들도 아빠라고 불렀다. 그런데 간통으로 넣는건

말이 안된다는게 그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 남편, 애들 데려다 아이키우기 했을거라고 농담하곤 했습니다. 제 친구가 가끔 얘기합니다. 그 때 머리 아저씨도 진짜 구국의 결단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 정말 진심으로-

어떤 분이 그러더군요. 불륜도 사랑이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잖은 것처럼 보이느냐. 그런 감정 한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이 도덕고과서처럼 비난하는건 듣고싶지 않다. 당사자들도 충분히 괴롭다.

사랑의 감정을 하찮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불륜이 심심해서 하는 것이지만 아주 가

끔은, 처음 몇 달 동안 슬프고 절박한 사랑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 사람이 아무리 절박하더라도, 불륜을 비난받지 않아도 좋을 경지로 올려놓지는 못합니다. ‘절박함’이나 ‘어쩔 수 없음’이 행동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근거는 아니니까요. 죽을 만큼 갖고 싶어서 흠치면 절도가 아닌가요?

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 모든 비난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하는 것이지요. 바람피우는 것, 마약하는 것, 도박하는 것, 바바리맨, 다 나쁜 짓이고 비난 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니까요. 건강하게 사는 멀쩡한 사람들 다치게 하니까요.

바람피우는 것, 마약하는 것, 도박하는 것, 바바리맨, 다 나쁜 짓이고 비난 받아야 합니다

바바리맨의 심정에 대해서 생각해보신적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절박하니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절박하면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마약하는 사람, 도박하는 사람들, 절박함으로 따지면 의외로 뒤지겠습니까? 안하면 죽을 거 같으니까, 의지로도 어쩔 수 없



56.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 선수가 처음으로 한 경기에서 두 골을 뽑아냈습니다.
 ‘신현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선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으로 지난 17일 밤(이하 한국시간) 2006-2007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Bolton Wanderers와 홈 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하며 전반 14분 선제골과 전반 25분 팀의 세 번째 골로 연속 득점포를 쏘아올렸습니다.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① 박지성 ② 설기현 ③ 이영표 ④ 이동국

참어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용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당첨자와 고급ring권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대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검색절정 키워드 검색

유명 연예인들의 화보집이 공개됐다는 소식은 네티즌들에게 언제나 인기를 끈다. 최근 모바일 색시 화보집을 공개, 육감적 몸매를 드러낸 연예 지망생 나하나(23), 비키니 몸매를 드러낸 여성 3인조 가수 ‘스윙’도 네티즌들의 클릭 세례를 받았고 슈퍼모델 출신의 배우 이선진 이 상반신을 드러낸 파격적인 모습의 화보집도 공개되자마자 검색 횟수가 급증했다.

또 만삭의 몸으로 찍은 화보가 공개되면서 탤런트 장신영(23)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다. 패션지 화보를 통해 임신 9개월의 만삭 몸매를 공개했

연예인들의 색시 화보집 네티즌의 큰 관심

데 임신모라고는 믿기 어려운 정도의 몸매를 선보였다네 네티즌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며 화제가 됐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결혼해 오는 4월 초 출산을 앞두고 있다.

전 롯데자이언츠 투수 박동희(40)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도 네티즌들의 클릭 세례를 받았다. 부산고 출신의 박씨는 아마추어 시절부터 ‘국가대표 에이스’로 명성을 날렸다. 박씨의 사망 소식이 인터넷에는 이날 수많은 애도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아나운서 손문선(27)씨와 록밴드 노브레인의 베이시스트 정재환(29)씨의 열애 소식도 눈길을 끌었다. 손 아나운서는 YTN스타의 생방송 ‘스타 투데이’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자신이 출연한 단막 드라마 공개 현장에서 지각, 팬들을 실망시켰던 이효리(28)가 최근 시사회장에서 공개 사과를 했다는 소식과 탤런트 한채영이 결혼 선물로 벤츠 자동차와 다이아몬드 반지 등 7억원의 프로포즈 선물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네티즌들의 찬반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근 모바일 화보로 통해 얼굴을 알리기 위해 화보 촬영에 나선 연예 지망생 나하나.

제1회 김상표 4단 영예의 첫 우승 총보(1~208)

광주시 교육감배 교직원부 결승전

白 김상표 4단 <운암중 교사>

黑 정갑면 4단 <진흥고 교사>

손에 땀을 쥐게하는 치열한 접전 끝에 결국 영예의 제1회 교육감배 우승컵은 운암중학교의 김상표 4단이 차지했다.

정갑면 4단도 나름대로 분투를 거듭하며 역전을 노렸으나 초반에 워낙 세력을 뺏긴데다가 후반 흑 대마가 구사일생하고 난 다음 역전되었는 바람에 결정적인 기회를 허공에 날려버렸다. 순간의 판단미스가 통함을 남기고 만 것이다.

초반에는 정갑면 4단이 흑 9, 11, 13 등 의욕적인 포진을 펼쳤으나 김상표 4단도 지지않고 18로 나가 26으로 끊는 등 기세싸움이 치열했다.

바둑소식

저우전선 제11회 LG배 우승

대만 바둑의 간판스타 저우전선이 생애 첫 국제대회 정상에 올랐다. 저우전선 9단은 22일 서울에서 열린 제11회 LG배 세계기왕전 결승 3번기 최종국에서 중국의 후아오위 8단에게 198수만에 흑 반집승을 거두고 종합전적 2-1로 우승했다.

국제 바둑사상 최초의 ‘양안(兩岸) 결승대결’로 관심을 모은 이번 대회에서 우승컵을 거머쥔 저우전선의 등장은 그동안 한·중·일간의 기세에 움츠려온 대만 바둑계의 발전에 큰 자극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회 우승상금은 2억 5천만 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바둑소식

대만 바둑의 간판스타 저우전선이 생애 첫 국제대회 정상에 올랐다. 저우전선 9단은 22일 서울에서 열린 제11회 LG배 세계기왕전 결승 3번기 최종국에서 중국의 후아오위 8단에게 198수만에 흑 반집승을 거두고 종합전적 2-1로 우승했다.

국제 바둑사상 최초의 ‘양안(兩岸) 결승대결’로 관심을 모은 이번 대회에서 우승컵을 거머쥔 저우전선의 등장은 그동안 한·중·일간의 기세에 움츠려온 대만 바둑계의 발전에 큰 자극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회 우승상금은 2억 5천만 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더마플라스트 밴드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용서없이!! DermaPlast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굿모닝 잉글리쉬 <867> | 오하오유 니혼고 <867> | 니하오 쑹구워 <58> | 한자 이야기 <485>

Time flies
 시간 참 빨리 흐르네요

A: And that's the story of my trip to Europe.
 B: It sure sounds like you had fun.
 A: Yeah, it was great.
 B: Oh, it's already midnight. Time flies. I'll see you tomorrow.

A: 그런데 그것이 내가 유럽을 여행했을 때의 얘기라구.
 B: 즐거웠던가 보구나.
 A: 음, 정말 좋았어.
 B: 와, 벌써 자정인데. 시간 참 빨리 간다! 그럼 내일 또 만나.

Time flies.
 = Time goes very fast.
 = Time is slipping away.
 = Time flies like an arrow.
 = Time goes by fast.
 <반대> Time stands still (시간 참 더디게 간다)
 = Time stops still.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私は天然(てんねん)パマンですよ
 저는 천연파미예요

A: 木村さん、今日はなんか違(ちが)いますね。パマかけたんですか。
 B: いいえ、私は天然(てんねん)パマンですよ。
 A: なんですか。その天然(てんねん)パマっていうのは。
 B: 癖毛(くせげ)ということですよ。

A: 키무라씨, 오늘은 어딘가 다르네요. 파마했어?
 B: 아뇨, 저는 천연파미예요.
 A: 뭐예요? 그 천연파미 라는게?
 B: 곱슬머리라는 뜻이에요

違(ちが)う: 다르다
 天然(てんねん): 천연
 癖毛(くせげ): 한쪽으로 넘는 머릿이 있는 (머리) 털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西湖风景美极了
 서호의 풍경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A: 西湖风景美极了。
 Xīhú fēngjǐng měi jí le.
 서호 풍경 매우 아름다워!
 B: 真的吗? 西湖风景?
 Zhēn de ma? Xīhú fēngjǐng?
 A: 对的。
 Héng zhèng.
 맞습니다.
 B: 知道了。杭州离上海很近。
 Zhī dào le. Hángzhōu lí Shànghǎi hěn jìn.
 쯔훙오리 쯔쑤우우 량 셴허이 현인 쯔

A: 서호의 풍경은 정말 아름답네요.
 B: 서호가 어디에 있어요?
 A: 杭州에 있죠.
 B: 啊? 杭州는 상하이에서 얼마나 멀어요?
 A: 很近。
 美极了 [měi jí le] 정말 아름답다
 西湖 [xīhú] 서호(중국강장항주에 杭州 호수)
 离 [lí] 떨어져, 멀리
 近 [jìn] 가깝다

<호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
 ☎ 3838-868

梁上君子(양상군자)
 들보랑, 위상, 군자군, 사람자

양상군자(梁上君子)는 들보 위의 군자라는 뜻이지만, 집안에 들어온 도둑이나, 천장 위의 쥐를 일컬을 경우에 사용한다.

후한(後漢) 말엽, 진식(陳寔)이란 사람이 태구현(太丘縣)의 현령(縣令)으로 있을 때의 일이다. 그는 늘 겸손한 자세로 현민의 고충을 헤아리고 매사를 공평하게 처리하여 현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그런데 어느 해 흉년이 들어 현민의 생계가 몹시 어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진식이 대청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웬 남자가 몰래 들어와 들보 위에 숨었다. 도둑임을 눈치 챘지만 진식은 모른 채하고 독서를 계속하다가 아들들과 손자들을 대청으로 불러 모아서, “사람은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악인이라고 하여 본성이 모두 악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슬관이 어느덧 성품이 되어 악행을 하게 되느니라. 이럴테면 지금 들보 위의 군자(梁上君子)도 그렇다.”고 말하였다.

도둑은 이 말에 깜짝 놀라 얼른 들보 위에서 뛰어내려와 이 말을 조야리며 사죄하였다. 진식은 그를 용용히 타이르고 비난 두 팔을 주어 보냈다. 이 일이 알려지자 고을 안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없어졌다고 한다.(後漢書·陳寔傳)

<한예원(韓睿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6505